

성보관리 '구멍' 해인사 판전에 연탄난로 경관 평가없이 땅바닥에

흑석사 국보 파출소무기고 보관도

성보 문화재가 문화재관리국과 사찰측의 방심으로 주먹구구식 관리가 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대장경 판전(국보52호)중 동사간고 보수공사가 중정기에 무리하게 강행돼 동사간고의 경관을 서사간고로 옮겨가면서 공간이 부족하자 판전이 땅바닥에서

구멍을 뚫고 문화재 관리 허점은 예산 부족과 관계자들의 의식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은 대장경 문제로 물의를 빚자 3일과 5일 작업을 해인사로 급파, 대책마련에 나섰고 해인사 측은 동사간고안에 피워온 연탄난로를 치웠다. 해인사는 11월2일부터 동사간고 지붕기와 및 서까래 해체 보수를 강행 90%정도 공사가 진척됐는데, 올해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판전보수비용으로 책정된 4천2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정부예산회계법

상 국고로 다시 환수되기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인사 판전보수부장 남일섭은 "초 국보 문화재 보수공사를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자체가 지도소홀"이라고 밝혔다. 문화재관리국 정유태 보수과장은 "관정보수는 해인사 직영공사이며 합천군이 공사감독을 하고 문화재관리국은 기술지도만 할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판전 수리작업 의견서를 합천군청에 제출한바 있는 이태녕박사(서울대 명예교수)는 "동사간고의 경관들은 상태가 좋지 못해 서사간고의 경관들

해인사 판전에 연탄난로 경관 평가없이 땅바닥에

"위기를 기회로 삼자"

월주스님 '경제위기' 설명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4일 현 경제위기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설명을 발표했다. 월주스님은 설명에서 "외부세력에 의존 방만한 경영을 해 온 기업과 안일하게 대응한 정부의 관리능력 부재, 소모적 정책을 되풀이 해 온 정치권에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월주스님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산업구조 조정 △금융실명제 부분적 개선 등을 촉구했다.

원로의원 선출논의

조계종 11월 원로회의
 지난 6월 조계종 127회 임시중앙총회에서 추천된 새 원로의원 선출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원로회의가 11일 오후 2시 총무원 4층에서 열렸다. 이날 새로 선출될 원로의원은 종산(보살사조실) 보살(총공사방장) 정천(문수암조실) 법전(해인사방장) 정무(영월암조실) 도원(파계사조실) 복원(동국학원이사장) 등 7명이다. 원로회의는 또 종단주요현안 등 총무보고도 받을 예정이다.

대학시절 나는 바둑에 미쳐 기원에서 살았다. 을지로4가 국도극장 건물이 붙어있는 국도기원이었다. 이 기원의 입장은 바둑을 재미있게 볼뿐 아니라 <삼국유사>나 <삼국지> 같은 어려운 한문 원서를 독해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 가끔은 그의 원서 강의듣는 재미도 참 고소하였다. 기원이 파한 후에는 입장을 비웃어 마음 맞는 바둑꾼들이 목로주점을 찾아 밤 늦도록 정담을 나누곤 했는데 그 분위기가 지금도 향수로 남아있다. 그 시절 나의 일과는 이렇게 기원출근, 기원퇴근으로 일관하였다. 학교는 아예 문전에도 가지 않은채 한 학기를 기원에서 보냈다. 시골 부모님께서 부쳐주신 학교 등록금이 기원이나 목로주점 비로 전용되었음은 물론이다. 어느날 오후 예외 이 기원에 어머니께서 나타나

합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인증책임인
 했다.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없이 앉아서 학교로 나를 이끄셨다. 그리고 경리과에 들려 밀린 등록금을 내 주셨다. 참으로 간-시간동안 말이 없던 어머니는 시골행 버스를 타시면서 한마디 하셨다. "공부는 때가 있는 것이니 바둑도 좋지 않음은 해아한다"는 말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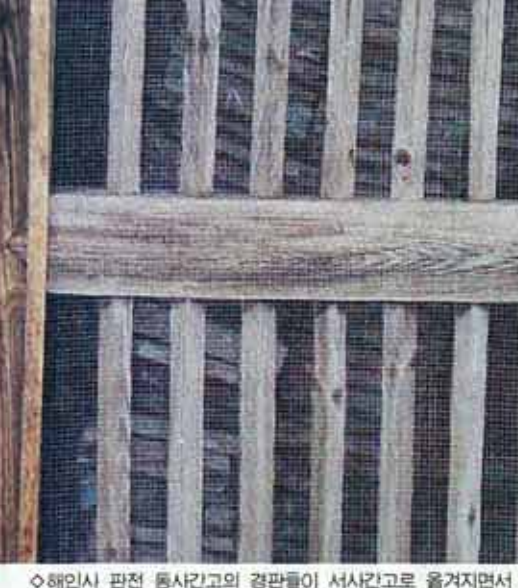


권오현

어머님의 영정 앞에서

불효자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후회한다 했던가. 그 사건 이후 학교공부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으나 참 바다나 산보다 깊고 높은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여 나는 때때로 호곡한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혼자의 힘으로 치뤄내기 어려운 일을 당할때 나는 어머니 영정앞에 엎드려 '꺼이 꺼이' 무는 버릇이 생겼다. 이 행위는 '사모의 염(念)'일 수도 있고 참회일 수도 있고 후회일 수도 있다. 또는 매달림일지도 모르겠다. 매를 들어 자식을 가르치시기 보다는 스스로 뉘우치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셨던 어머니는 그래도 아직 내 주위에 계시며 어떤편 노여워 하시고 어떤때는 웃어 주신다. 이럴때 나는 가끔 부처님 상호와 어머니 모습이 겹쳐짐을 느낀다. 그리고 철없이 바둑집에서 한철을 보낸 부질없는 시간을 무릎 꿇고 참회한다. "어머님, 다시는 종교학교 바둑부는 지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모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구독·광고 문의 (02)737-8881
사찰경제도 'MF 한파' 23면



◇해인사 판전 동사간고의 경관들이 서사간고로 옮겨지면서 공간부족으로 땅바닥에서 갇혀져 있다.

'연말연시 노란연등 달기' 전개

북돋기불교추진위
 불교추진위 유지원 사무국장은 "경제사정이 어려워짐으로 인해 북돋기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떨어진 것으로 예상, 나라 경제 회생과 북돋기포의 건강을 기원하는 연등달기 캠페인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불교추진위는 △옥수수보내기를 위한 달려모이기 △연하장 안보내기 △통일저금통 배포 등의 캠페인을 공동추진기로 했다.

조계종 내년 '신도교육의 해'

포교원, 총무원장에 건의...3원장 골 논의

조계종포교원은 전반기 해 2차연도인 내년을 '신도교육의 해'로 정할 방침이다. 포교부장 원혜스님은 3일 '내년 전반기 사업을 성과있게 치뤄내기 위해서는 신도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총무원장에게 이같은 뜻을 전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이고 "총무원장과 포교부장 교육위원장 등 3원장이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에 맞는 신도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원혜스님은 "신도교육이 어려운 곳은 본사에서 수련회를 개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불교 북돋기 모금등 잠정중단

부산불교 북돋기운동본부(집행위원장 한재규)의 활동이 내년 1월까지 중단됐다. 지난 6월 결성 이후 부산불교 북돋기운동본부는 은행 계좌와 거리캠페인 등을 통해 모금운동을 전개해왔으나 성공 모금액이 2천5백만원에 그치는 등 활동이 저조했다. 운동본부는 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쳐 내년 1월까지 활동을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모금함 회수, 성금 관리 등을 부산불교 신도회 사무국에 일임했다. 하지만 내년 1월 운동본부가 활동을 재개한다 해도 경제사정, 사회불안, 부산불교계의 인식부족, 조직적 활동부족 등으로 부산불교 북돋기운동본부는 단기간 전망이 불투명하다.

제3회 신행수기 공모 마감 12월15일

현대불교신문이 제3회 신행수기공모를 합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신행의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시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는 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는 회를 거듭할수록 강도와 신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꾸준한 상금이 준비돼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게재됩니다.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 공모 내용**
- △주 제: 생활속 수행이야기,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 량: 2백자 원고지 30매 내외
 -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우 110-170)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722-4162
 -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98년 신년호
 - △시상내용:
 - 유미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순금메달)
 - 종단합의회장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순금메달)
 - 본사시상상: 상장 상품
 - 특별상: 상장 상품·용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다이옥신 공포를 해결한 경이의 소형 소각로

- 영우 소각로 특징 ■
- ◆ 세라믹 필터 장착! 매연해결
연돌 하단부에 설치된 특수 세라믹 필터는 다이옥신의 독성을 제거하는 영우소각로 특유의 기술입니다.
- ◆ 대형 소각로보다 월등한 기능
포항공대 - 英 sal사 측정·허용기준치 이하 ...0.3 나노그램
- ◆ 초고온 하향식 연소방식
국내유일 특허획득 125893호
- ◆ 각급학교, 관청, 기업체, 사찰, 교회등에 2년간 400대 납품
- ◆ 상시 A/S반 대기
- ◆ 저렴한 가격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였으나 100% 자체기술
이므로 성능에 비해 가격이 쌉니다.



- 소각대상물
폐지, 폐목, 폐섬유, 폐합성수지(PE, PP), 생활쓰레기, 기타 산업폐기물등
* 수분 30% 이상의 것은 폐기물이나 프라스틱 및 폐고무가 많이 섞여 있을 경우 소각초기에 연기가 비칠 수도 있습니다.
- 설치하면 좋은 곳
관광사찰, 각급학교, 관공서, 군부대, 산업체, 국·도립공원, 고속도로 휴게소, 호텔, APT 단지, 병원 및 농어촌, 자연 부락단위등

